

시온 주보

제2522호

2024년 9월 22일(나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문학진 토마스 아퀴나스(1924-2019)
1983, 캔버스에 유채, 91×73cm
명동대성당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입당 송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
하네.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 송 | 시편 126(125),1-2ㄱ,2ㄴ-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겅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

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
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L-39

복음환호송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
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
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십자가, 짊어질 때 사랑이 되는 이름



류지인 야고보 신부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사랑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넘쳐나는 처방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니다. 전문가들의 그럴싸한 충언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아리송하고, 상처받은 마음에는 적대감이 파리를 틔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사랑’이라는 신비를 해답처럼 우리에게 주셨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이 얼마나 경악스러웠는지 한 번 상상해 봅니다. 당대에도 지금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은 목숨마저 내어주는 희생에서 꺼지지 않는 생명을 움트게 하지 않던가요? 하느님을 부르면서도 삶의 방향 전환을 꾀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사랑은 헛된 말 잔치에 머물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시골 수도원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익숙한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다시 한번만 잘 생각해 보거라! 어떤 유능하고 덕망 있는 신부님께서 차라리 다시 신학생이 되고 싶다셨다더라. 그러면 ‘사제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남들은 축복이라는데, 이 못난 어미에게는 생이별의 고통뿐이구나!” 막 걸음마를 떤 여린 수도자의 삶은 암흑 속 번민에 파묻혀버렸습니다. “벗어버리면 길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야. 짊어지고 가는 삶이란다.” 선배 수사님께서 종이에 꺾꺾 눌러 익숙한 성경 구절을 적어주셨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고독한 짐으로 여겨왔던 십자가의 무게가 축복을 예비한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신학생 김대건은 복통과 요통을 달고 사는 데다, 문장 실력도 편차가 심하며 행동마저 경솔하다는 교수 신부님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동료 신학생들과 대조되는 능력 부족, 견뎌내기 어려웠을 변뇌의 자리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인내로 채워졌습니다.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글은 기꺼이 십자가를 껴안고 마침내 은총의 결실을 맛본 이의 신비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일상이 ‘십자가’에 비유된다면, 그곳을 신앙의 자리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위시한 한국 순교자들이 그 귀감이요 희망의 동료이자 선배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갈음할 수 없는 기쁨에 벅차 오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지혜 3,4 참조)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기에’,(로마 8,35 참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로마 8,37)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흰색 두루마기는 순결과 천상의 영광을, 때로는 고귀한 죽음을 나타냅니다. 붉은색 영대와 십자가는 하느님을 향한 신부님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간곡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토록 뜨거운 신부님의 하느님 사랑과 열정이 이 작은 성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티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과달루페의 성모님



한수산 요한 크리스스토모 | 소설가

세례를 받고 난 사흘 후, 저는 중국 상하이 공항에 홀로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긴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찌다가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 무언가 초조할 때도, 하릴없이 혼자 있을 때나 하다못해 신문을 읽을 때까지도 어김없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지냈습니다.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설렘과 이제부터 천주교 신자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퇴퇴 손톱을 물어뜯으며 앉아 있던 그때, 그냥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몸을 제 이빨로 제가 물어뜯어 퇴퇴 내뱉고 있는 이 버릇! 이거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저도 지겹거든요.”

탐승 안내 방송을 들으며 비행기에 오른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손톱을 물어뜯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기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쿠바 이민사의 비극과 영광을 그린 SBS의 ‘애네깡의 후예들’ 관련하여 취재하고 멕시코로 돌아온 우리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의 휴식을 갖기로 한 우리를 위해 멕시코 관광 안내를 맡아주기로 한 분은 대사관 직원의 부인이셨습니다.

다음 날, 자연사박물관으로 가기 위해 그분의 차에 오른 우리는 극심한 정체에 갇혀 버립니다. 반대편 차선은 뺑뚱해서 차들이 달려가는데... 30여 분을 꼼짝도 못 하고 앉아 반대 차선을 바라보자니 뭔가 이상합니다. 달리는 차마다 꽃으로 장식한 성모상이 실려 있습니다. 성모상을 둘러싸고 와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다들 미쳤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운전 기사의 날’인 오늘, 휴일을 맞은 기사들이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에 순례를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위해 우리 쪽 차선을 막고 있다는 것도. 성모님을 뵈러 가야지 무슨 얼어 죽을 박물관이나. 불법 유턴을 한 우리도 성모 발현지로 내달립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알현이라는 기적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성모님의 형상이 새겨진 천은 벽에 걸려 있고, 10여 명씩 대형 컨베이어벨트 같은 것에 올라타 그 모습을 쳐다보며, 눈물지며 지나갔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면 긴 줄의 맨 끝에 가서 벨트에 올라탈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1531년 멕시코의 테페악 산에서 57세의 원주민 성 후안 디에고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모님은 갈색 피부의 원주민 여인으로 파란색 망토를 입고 계셨습니다. 디에고가 장미를 담았던 옷 털마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집니다. 그것이 과달루페의 성모화입니다. 나를 스쳐 가는 작은 기적들, 주님을 만난 후의 행복입니다.

한
컷
교
리

성인 시성을 위해서는
두 건의 기적 사례가 필요합니다

103위 순교 성인은

- ① 순교 자체가 기적이라는 점에서,
- ② 선교사의 도움 없이 평신도 중심으로
신앙이 퍼져나간 우리나라의 ‘신앙의 기적’을 감안하여
기적 심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꿀피로 내려가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센터(서울A지T) 소장

아지트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고1이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도망쳤고 어머니는 심각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가 많은 하나뿐인 친오빠는 더 이상 어머니를 못 돌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듣게 된 잊혀지지 않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족끼리 외식을 해본 적도, 바다를 가본 적도 단 한번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활비를 매월 지원해 주는 명목으로 아지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오는 날이면 모든 선생님과 저는 한 가족이 되어 그 친구와 외식을 했습니다. 물론 1인 식비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메뉴는 이 친구가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 영, 수를 더 공부해야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6년 이상 사목했던 대학교 사목부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 친구를 위해 최대한 오랫동안 과외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예요. 그래야 집에서 통학하며 엄마를 돌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친구가 꼭 서울에서 통학할 수 있게 되길 기도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던 그 친구는 현실의 벽을 체험하며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수능 후에는 즉시 또 다른 꿈 ‘바다 보기(!)’를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강릉 바다로 갔습니다. 좀 추웠지만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좋아서 푸른 바다를 실컷 볼 수 있었기에, 이 친구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행 후, 어느 주일에 저는 아지트 후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장안동성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후원신청서에 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다니는 간호대학 교수님이셨죠. 저는 곧바로 전화드렸고 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그분은 “조만간 법원에서 회의를 있는데 이 친구에 관한 내용을 안전으로 올리겠습니다.” 하시더니, 그다음 주에 놀라운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이 친구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 친구가 2학년이 되던 겨울, 이 친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커플에서 부부가 되어 제가 혼배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그날 이 친구도 어느새 예쁜 아가씨가 되어 왔더군요. 개신교 신자가 되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동네 교회에서 신도들과 목사님이 이 친구를 어려서부터 고3 때까지 생필품과 생활비, 공부할 공간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던군요. 오늘 복음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꿀피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태 9,35)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어느 종파가 됐든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한 성상들로만 채워져 있고 그저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가 언제나 환영받을 수 있고 그들을 첫째로 여기며 꿀피로 내려가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기억’은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인지 과정입니다. 기억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행동을 선택하거나,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억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기억이 정보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저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유익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기는 쉽지 않지만) 보상이 주어지는 결과에 따라 과거를 기억해 내는 패턴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오늘 ‘기억’이라는 주제를 꺼낸 이유는, 루카 복음사가가 묘사하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후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즈카르야의 노래’(루카 1,68-79)입니다. 즈카르야의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를 요약하는 앞부분(68-75절)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신약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뒷부분(76-79절)입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에 관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 원

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 한평생 당신 앞에서 …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 모세와 맺으신 계약,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계약(창세 17,2; 탈출 19,5 참조)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구원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억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의 삶에 유익한 분 혹은 어떤 보상과 연관된 분으로만 하느님을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이심을 기억하고 그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느님 축진제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얼마 전, 다른 교구 신부님을 만나 며칠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사제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고, 사제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향점도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신부님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마음을 지니게 되었을까 혼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 남미 어느 나라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로 지낸 경험이 있으시더군요. ‘아, 그래서였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열여름을 보내면서, 신부님은 선교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드립니다. 더위든 추위든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오롯이 마주해야 했던 환경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하느님의 크심을 느끼고 그분을 찾고 만나게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안정이 하느님을 찾는 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에, 내심 부끄러우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적 결핍이나 환경의 불안정함이 우리의 삶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러한 사회적 ‘악’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채우려는 바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어야 그를 채우거나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가까이에서 찾을 수 없다면 눈을 들어 더 멀리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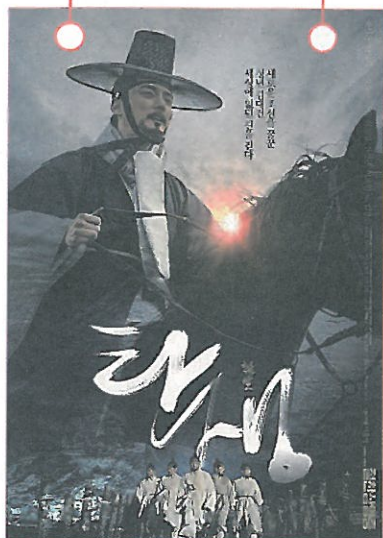
사회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내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으로만 만족한다면 바랄 무엇이 더 있을까요? 그저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내 안의 어떠한 결핍을 느끼는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자신을 ‘벗어나’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결핍이나 약함, 어두움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때문에 자꾸 나를 부정하고 단죄하고 책망하게 되지만, 그 때문에(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을 ‘찾아야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찾아야 내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절로 하느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욕구와 약함, 결핍과 죄스러움 모두, 하느님을 찾게 하는 ‘축진제’가 아닐까요?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덕에 하느님을 더 찾고 만나게 되니 소중한 보듬고 간직하고 싶은 또 하나의 선물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 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2코린 12,9)

상단 QR코드(이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작, 감독 '박홍식'



영화 '탄생'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신학생 시절, 방학을 앞두고 학기의 마지막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신부님들께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저 인사말은 사제 성소를 향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사실 신학생에게 방학이란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는 다짐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더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향한 기억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에게 ‘순교’라는 단어를 어렵듯이 떠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저 자신이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합당한 사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면 ‘살아남았다.’라는 안도로 가득한 일상을 다시금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채우기 위해 마음을 다잡기 때문입니다.

박홍식 감독이 연출한 영화 <탄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을 다룹니다. 영화는 신학생으로 발탁된 뒤 마카오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청년 김대건이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과 순교의 영광을 입게 되는 순간까지를 철저한 고증을 통해 그려나갑니다. 그 안에서 박해로 점철되는 조선 천주교회의 실정과 아편전쟁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마주한 청년 김대건의 사제직을 향한 열망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애정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이 조선인 최초의 사제를 탄생시켰고, 수많은 박해를 겪은 조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세속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허무’ 그 자체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마카오로 유학을 가 10년의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겪은 끝에 조선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은 청년 김대건은, 사제가 된 지 13개월 만에 스물여섯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부님의 삶을 결코 허무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을지 모를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로서의 삶은, 이후 한국 천주교회를 넘어 세계 보편교회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탄생>이 보여주는 김대건 신부님의 삶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다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같은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순교’란 결국 세상의 허무를 극복해 나가는 삶의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며 묵묵히 걸어 나가는 삶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껴박한 현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이자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밀려오는 허무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허무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남았다.”라는 안도의 한숨 대신에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뜨거운 다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9월 22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9월 25일 박동헌 마르코 신부(55세)
- 2004년 9월 25일 박고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8세)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헌금으로 환산하여 오늘(9월 22일)까지 각 본당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의: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모금관리팀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변영숙 개인전: 1전시실
고윤미 개인전: 2전시실
박경미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9월25일(수)~10월3일(목)

2024 토요 성모신심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내용: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강의: 조창수 신부 /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돌봄이 필요한 노숙인을 위하여
때, 곳: 9월26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86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목주기도 음악회

주제: 아름다운 노래 Ave Maria로 바치는 목주기도 한 단 / 문의: 02)777-2013
때, 곳: 10월8일(화),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20회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

내용: 복음특강 및 찬미의 시간, 장엄미사 등
대상: 서울시 가톨릭공직자 및 가족, 퇴직자
때, 곳: 10월12일(토) 13시~17시, 광진구청 대강당
문의(신청): 02)727-2078 기관별 교우회 총무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하반기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기도학교, 뮤지컬, 바이올린, 해금, 이태리어 배우기, 현대미술, 집단상담, 우울과 불안 강좌 외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민족화해위원회

1) 1436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9월2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讞본당': 평양교구 운향시 본당
2) 후원회 미사
때, 곳: 9월27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 문의: 02)727-2415

제1회 하늘땅물벗 전국대회

주제: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십시오'
(로마 8,19-25) / 주최: 가톨릭 하늘땅물벗 한국협의회(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인천교구 생태환경사목부 ·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때, 곳: 10월9일(수) 10시30분~16시30분, 주교좌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 대상: 하늘땅물벗 회원 및 협력회원
주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특별미사와 해설이 있는 도보순례 접수 안내

1) 시복시성 기원미사(2024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박 루치아'
때, 곳: 매일 셋째주(화) 오전 10시 · 9월24일(추석 연휴로 한 주 연기), 절두산 순교성지
2) 순교자성월을 달는 미사
때, 곳: 9월29일(일)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구요비 주교(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및 교구 사제단 / 원주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오후 1시~5시)
3) 해설이 있는 도보순례
때 · 코스: 10월1일(화) 1코스 말씀의 길 · 10월5일(토) 3코스 일치의 길 · 10월15일(화) 2코스 생명의 길
신청: 9월2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4/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태블릿으로 성탄 카드 만들기	10월2일~11월6일(수) 15시~17시
아이패드로 성탄 이모티콘 만들기	10월2일~11월6일(수) 19시~21시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오르간	매주(목) 또는 (토) 10시~16시(개인 강습 · 연습)	매월 15만원	010-8508-9384 담당 강사(문자문의 요청)
전례 꽃꽂이	매주(금) 10시~13시(교구별) 매주(금) 13시~14시30분(초반)	7만5천원 (7개월/재료비 별도)	010-5302-4593 담당 강사
수어	매주(목) 또는 (금) 19시~21시	12만5천원 (6개월/교재비 포함)	02)995-7394 에파타성당

우리농 30주년 기념 '씨앗에서 숲까지, 나무심기'

대상: 우리농 활동가, 후원회원, 개인회원 및 가족
선착순 50명 / 회비: 1인 1만원(1인 3~5그루 심기)
때, 곳: 9월3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노을공원
준비물: 개인캡과 물, 튼튼한 운동화, 긴소매 · 긴바지, 모자, 손수건, 작은 돛자리, 도시락 지참(일회용품 금지)
문의: 02)727-2277 / 우리농 홈페이지(wm.or.kr)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직업연주자로 구성된 한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때, 곳: 10월7일(월) 19시~21시, 명동대성당
내용: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공연, 성악가 및 가톨릭합창단 협연 / 참석: 서울시민 누구나

생명위원회

1) 서울대교구 수유실 오픈
위치: 명동 1898광장 지하 1층 화장실 입구 오른쪽
사용시간: 8시~22시까지 이용 가능 / 이용을 원할 경우 명동 1898광장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청년 생명교육
주제: 나 자신의 소중함 알기, 그리고 삶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가기 / 프로그램: 젠더, 비폭력대화 방법,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상호 관계, 인간의 존엄성 등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 문의: 02)727-2351
때: 10월8일 · 15일 · 22일 · 29일 매주(화) 총 4주
곳: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 회비: 강의당 1만원, 총 4만원(전 과정 수강 시, 중복 수강 가능)
홈페이지(www.forlif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3) 파파의 생명교실

대상: 생명에 관심있는 누구나 / 강의: 생명의 복음편(하반기)
내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때: 10월10일~31일 매주(목) 19시~20시30분(4주간)
회비: 1만원(생명의 복음 교재 개별 준비)
문의(신청): 02)727-2351 생명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0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ICPE Jesus 시그널 피정 5차
 대상: 만 28세~39세 가톨릭 미혼 청년
 때, 곳: 10월25일 저녁~27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문의(접수): 010-5320-0419 / 카카오톡 플친: ICPE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10월18일(금)~20일(일), 11월15일(금)~17일(일) 2박3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담당자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음악 피정
 주제: 위로-사랑을 만나다 / 진행: 최준익
 때: 10월5일(토) 16시 / 회비: 1만원
 곳: 서소문성지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 B3
 문의(접수): 070-4911-2333

남북 평화적인 통일기원 체나폴로 및 미사
 때, 곳: 10월7일(월) 10시45분, 명동대성당
 미사: 서상범 주교와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교황 대사) 전국 MSM 사제단 / 평신도 800명 선착순 입장
 문의: 010-3136-7869 마리아사제운동 체나폴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금요일야기도회
 강사: 김지학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9월27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 성령봉사회 정류장 하차 / 울동, 찬양, 고해성사

14동자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 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9월24일(화) 유영진 신부 | 10월15일(화) 방부억 신부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9월24일 이상기 회장 | 10월1일 김중국 신부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차	11월15일(금)~23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차	12월27일(금)~2025년 1월4일(토)	
제13차	1월24일(금)~2월1일(토)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1월15일(금)~17일(일)	허규 신부(서울대교구)
12월20일(금)~22일(일)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2025년 1월17일(금)~19일(일)	신우식 신부(원주교구)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 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말씀여행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10월2일~4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자연·성지순례),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 센터-주최) /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10월28일~30일·11월14일~16일·12월7일~9일·12월13일~15일·2025년 1월17일~19일·1월23일~25일·2월8일~10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3일~6일·11월18일~21일·11월24일~27일·12월1일~4일·3월1일~4일·3월9일~12일, 연말연시 12월30일~1월2일(한라산·해남·해운대)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14일~16일·10월23일~25일·11월1일~3일·11월7일~9일·11월21일~23일·12월1일~3일·12월6일~8일·12월14일~16일, 추자도 포함 11월16일~19일·11월25일~28일·2025년 3월23일~26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1일(한라산·해남·해운대)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이콘 강습(투스핑 포교 베네딕도회 서울 수녀회)
 김 헤르만 수녀 / 문의: 010-6746-1997 (문자)

성물·수제 묵주 조각 기초 교육(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0월16일~30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타회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주제: 희망의 순례자들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때: 9월23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 문의: 02)705-4711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회비 없음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7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어른이 되어서 읽는 어린왕자' 인문학 강좌
 때: 10월18일~11월8일 매주(금) 10시~12시(4회기)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ji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성센터

순교영성아카데미(순교영성특강) 당일 접수
 주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순교영성 / 회비: 1만원
 강사: 송봉모 신부 / 당일 현장접수
 때, 곳: 9월26일(목) 14시~16시, 순교성지 새남터 대성전 / 문의: 02)3275-1485(www.kmartyr.or.kr)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보자기아트(BOJAGI ART) 강좌
 한국의 전통 포장기법 보자기아트 수강생 모집
 때, 곳: 10월7일~12월23일 매주(월) 13시~16시(12주 과정),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강의실
 회비: 40만원(재료비 별도)
 과정 수료 후 보자기아트 2급 자격 취득 가능
 문의: 02)705-8718(<https://scec.sogang.ac.kr>)

2025년 희년맞이 특강-희망을 희망하다
 때: 10월24일~11월7일 매주(목) 19시30분(3주)
 곳: 사랑의 힘 지하 강당(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 문의: 02)333-9898 한국CLC

1강(10월24일)	시, 희망을 읽다	김기석 목사
2강(10월31일)	철학과 음악, 희망을 듣다	최대환 신부
3강(11월7일)	그림, 희망을 보다	장동훈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5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월30일(월)~10월10일(목)-전형일 10월19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석·박사 통합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가을 특강
 때, 곳: 10월16일~11월13일 매주(수) 5회-13시30분~15시30분(강의·12시10분(미사), 교육회관 1층 성당
 회비: 5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10월16일	창조, 아름다운 탄생	이창우 교수
10월23일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얼굴	이종환 신부
10월30일	보시니 미치도록 좋았다-명화로 보는 창조	윤인복 교수
11월6일	천지창조를 만나는 예술여행	바티칸 도슨트 채수한
11월13일	가을 음악회 '태양의 찬가'	남성중창단 폴리아모니

모집

서울대교구 우리소리합창단(국악성가) 단원 모집
연습: 매주(월) 19시, 전철 7호선 강남구청역
강사: 김윤아 소프라노, 김선미 명창 / 010-3909-120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5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
봉사 분야: 병원 안내 / 모집: 9월27일(금)까지
문의(접수): 02)2258-5781, 2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남녀 가톨릭 신자(1979년 이후 출생)
오디션: 9월28일(토) 14시
지원서: 명동대성당 홈페이지(PC버전) 또는 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9월 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제11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활동기간: 10월24일~27일 / 사전모임: 10월10일·17일
모집기간: 10월10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2) 9월 영화 치유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9월25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9월25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9월27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담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17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9월27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7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 / 문의: 031)243-6171
때, 곳: 10월12일(토) 10시~16시, 천진암 성지
미사: 이성효 주교, 이한택 주교, 전국사제단 공동집전 / 주최: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7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
·분당(구마동성당) 2만원·서울 목동(매전)

익산 성글라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20~40대 성인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일·월) 휴무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문의: 02)3147-8814(gcounseling-center.catholic.ac.kr)

모니카의 집(공동생활가정) 입소 어른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른신
모집인원: 1명 / 시설운영: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곳: 광진구 자양로 33길 36(어린이 대공원 동문)
문의: 02)455-3593, 010-8707-6913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일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가톨릭여성연합회 9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박준양 신부(레지오마리아에 서울세나투스 담당)
때, 곳: 9월24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
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4년 동교동 문화축제
청년문화공간JU에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2024
동교동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콘서트로 진행
되는 'Autumn Melody', 청년작가들이 준비한
'청년작가 플리마켓',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9월28일(토) 10시~19시, 청년문화공간JU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관계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대인관계, 부부, 사별, 우울, 영상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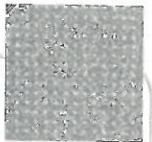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지원	인사총무, 재무회계
디자인	웹·콘텐츠, 편집
판매	매장 운영 및 관리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9월28일(일) 9시	서울 분원(창충동)	010-8353-2323 (문자)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의방선교수녀회	9월28일(토)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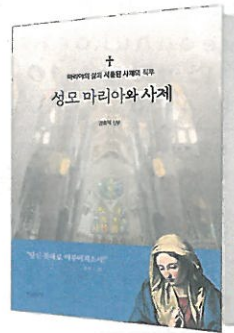
게재된
시간 검색

신간

하나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과 백서

여진천 엮음
기쁜소식 | 108쪽 | 6천원
문의: 02)762-1194

황사영 백서로 잘 알려진 황사영(알렉시오)과 그가 구베아 주교님께 쓴 편지인 백서에 대한 책이다. 황사영의 출생과 교회 활동, 체포와 죽음, 가족 및 후손의 삶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했으며, 백서의 내용과 사료적 가치, 백서의 영향 뿐 아니라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순교한 이들과 유배를 당한 이들의 명단을 덧붙여 황사영과 백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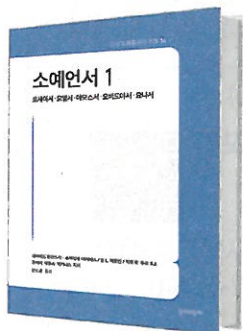


신간

성모 마리아와 사제

방효익 지음
기쁜소식 | 208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저 그렇게' 지나쳤던 성모님에 대해 교회가 가르침 안에서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다. 성모님에게서 보여준 믿음의 깊이와 의미를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안에서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도 성모님처럼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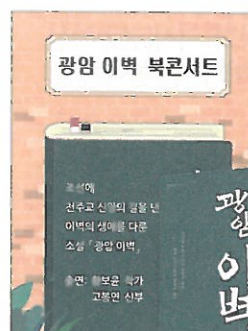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16 소예언서 1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데이비드 편찬스키외 4인 지음
성서와함께 | 240쪽 | 2만1천원
문의: 02)822-0125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제16권에는 열두 소예언서 가운데 첫 다섯 권에 해당하는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의 입문과 주해를 담았다. 각각의 소예언서에 대한 글은 서로 다른 저자가 작성해 나름의 특색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비교적 새로운 이론을 개진하여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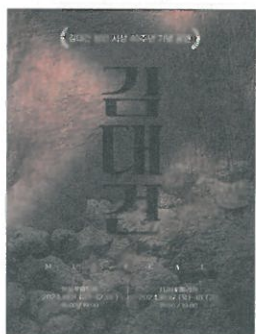
북콘서트

신앙
큐알(QR) 스캔

광암 이벽 북콘서트

때, 곳: 10월 5일(토) 14시, 화현 이벽 성지(경기도 포천) / 문의: 031)531-2234, 010-7286-7724(문자만 가능) 성바오로딸수도회
신청: 선착순 사전 신청(큐알스캔) / 참가비 무료

한국 교회의 창립 주역인 이벽 세례자 요한과 신앙선조들에 관한 소설 《광암 이벽》의 황보윤 작가와 화현 이벽 성지 담당 고봉연 신부가 초기 한국교회사를 소재로 나누는 신앙 토크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학문에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오늘 나의 신앙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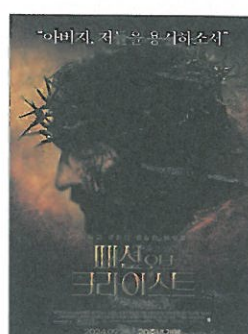


뮤지컬

김대건

때: 1차 10월 11일(금)~12일(토)
2차 10월 17일(목)~18일(금)
곳: 1차 영등포아트홀 · 2차 서강대 메리홀
공연시간: 15시 · 19시 / 전석 무료
플레이티켓(<https://bully.kr/GvUuQJ>)에서 예매
문의: 02)3789-7702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담은 창작 뮤지컬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신부님의 사성 40주년을 맞아 제작한 이 뮤지컬은 수입이 끊긴 영세한 프로덕션 기획팀이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현대와 과거를 넘나들며 신부님 이야기를 풀어낸다.



영화

신앙
큐알(QR) 스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개봉일: 9월 25일(수)
문의: 1544-8855 롯데시네마
할인방법: (롯데시네마 앱) - 메뉴 - 쿠폰 - 영화 - 쿠폰등록 - 할인권(인증번호: 45624189)
번호 등록 -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매 시 할인권 적용(9월 25일~10월 8일까지 적용 / 단체 10명 할인은 큐알스캔)

지난 2004년 개봉 당시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개봉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5일 재개봉한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12시간을 극사실주의 연출로 표현했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락처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교중) 오후 6시(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사도들의 모후 Pr. 레지오 선서식

일시 : 9월 24일(화) 오후 5시 30분 / 204호

선서자 : 류관선 가브리엘

◎ 병자영성체

일시 : 9월 27일(금) 오전 10시 출발

◎ 연령회 미사

일시 : 10월 1일(화) 오전 6시

10월 1일(화)만 오전 6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10월 1일(화), 3일(목)은 오전 6시미사만 있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성모신심미사 : 10월 5일(토) 오전 10시

◎ 연성회 야외행사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9시 성당에서 출발

장소 : 천진암성지

◎ 남성울프레이

일시 : 9월 22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프레이

일시 : 9월 24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 11월 14일(목)

일시 : 매주 화,수,금,토,주일 오후 8시 30분 / 소성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 304호

문의 : 사도요한 신부님 (010-3854-1317)

◎ 교리실 사용 후 냉방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아이들과 함께하실 선생님(청년 및 자모)을 모집합니다.

미사시간 : 매 주 토요일 오후 3시

문의 : 로사 교감 (010-7274-7443)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실비아 단장 (010-6588-2236)

◎ 청년배움터바오로 70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모집 : ~ 9월 22일(주일)

여는마당 : 9월 22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이사벨라 (010-2107-3054)

◎ 오늘은 헌미헌금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추석 연휴로 인하여 주보가 미리 인쇄
되었습니다.감사헌금, 교무금, 주일 헌금은 다음 주일
주보에 실겠습니다.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입당	287	봉헌	218,219,214	성체	165,174,172	파견	284
----	-----	----	-------------	----	-------------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 라